

濟州島 中山間部落民의 契集團 參與와 社會的 紐帶*

金 錫 俊**

I. 研究問題의 性格과 範圍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共同으로 해야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이 表出的(expressive)인 것이든 道具的(instrumental)인 것이든, 관심을 共有하는 사람들끼리 集團을 이루어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共同利益의 追求를 위한 集團形成은 곧잘 契의 組織化로 나타난다.

契는 한국사회의 傳統的 自生集團 가운데 가장 普遍的이며 代表性있는 集團이다. 契는 “……地域社會 내부에 존재하면서, 어떠한 利害 또는 諸利害群을 共同으로 추구하기 위해 조직된 하나의 집단 즉 機能集團의 一種¹⁾”이라고 定義할 수 있는데, 그 실제적인 目的과 機能에 따라 다양한 形態와 種類가 있다.²⁾

그러나 대부분의 契가 종래에는 地域社會住民들 즉 部落民들의 전통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方便으로 생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관한 研究도 經濟史的 側面을 주로 강조해온 경향이 있다.³⁾

* 본고는 제주도 연구회 제 1 차 전국학술대회(1985. 11. 15)에서 발표된 요지임.

** 濟州大學校 社會學科 教授

1) 崔在錫 “契集團 研究의 成果와 課題; 그 集團의 性格과 機能을 中心으로”, 「金載元博士 回甲紀念論叢」 1969, p. 592.

2) 契 類型에 대해서는 ibid, pp. 595-599 참조.

3) 예를 들면, 金三守 「韓國社會經濟史研究」 改訂 4版 서술, 博英社, 1974.; 姜昌奎, 「契가 里洞農協同組合에 미치는 影響」 上黨印刷社, 1969.

이점에 있어서 1977년의 한 연구는 주목할 만한 農村契의 변화를 보여준다.⁴⁾ 즉, 10년전(1966년)과 마찬가지로 農村契는 親睦과 共濟를 겸한 것으로 운영되면서, 部落當 4.4개의 契가 6.6개로 量的 增加를 보이지만, 대체로 단순한 親睦 위주의 계가 늘어났으며 契의 경제적 성격은 점차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바꾸어 말해서, 농촌계의 기능은 농촌사회의 구조변동과 함께 변화해가고 있으며, 그 변화는 경제적 측면의 상대적 약화와 부락주민들의 結束이나 紐帶強化를 위한 친목중심계의 증가로 방향잡혀진 것 같다는 것이다.

요컨대 契의 사회적 측면의 부각이 지금의 변화추세인 셈이다. 물론 이것은 契가 社會的 關係맺음의 場으로서 이전부터도 역할이 컸었지만 農村地域에서 새삼스럽게 더 중요시됨을 뜻한다. 말하자면, 과거에도 農村社會의 契는 同族集團과 함께 社會的 關係의 組織化原理를 구성하는 또 다른 하나의 軸으로서 部落民들의 사회적 유대강화와 社會統合에 기여해 왔는 바,⁵⁾ 지금에 와서 그런 요소가 다른 기능에 비해 한층 두드러지는 조짐이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산업화·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이 주는 영향 때문이라 하겠고, 미시적으로는 農村과 離農 그리고 農村社會의 解體危機에 대한 反作用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契의 機能的 變化가 農村社會에서 어떤 사회학적 의미를 지니는가는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本研究에서는 이러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제주도 증산간 부락민들의 契集團에 대한 參與와 사회적 유대의 수준간에 나타날 수 있는 관련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機能들간의 상대적 重要性을 직접 검토하지는 않고 단지 기능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보다 큰 범주의 契集團에 대한 參與와 社會

4) 姜昌奎 “農村發展과 農村契의 變貌에 관한 研究” 「農業政策研究」 4권 1977, pp. 5-28.

5) Mutsuhiko Shima, *Kinship and Economic Organization in a Korean Village*, Unpublished ph.D. Dissertion, University of Toronto, 1979.

的紐帶間的 관계에 단 치중하려고 한다.

II. 調查方法 및 道具

本 研究의 자료는 해발 200~600고지에 위치한 제주도 중산간 지대의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85년 여름 동안에 실시한 조사활동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조사는 5개 중산간 부락의 예비조사를 거친 후 3개의 부락을 再抽出하여 本 調查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本 調查의 조사대상자는 각 부락의 20세이상 男女로 제한하였으며, 조사결과 총 210명이 면접에 응했으며, 편집과정을 거쳐 205매의 질문지를 분석가능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本 調查 때 동원된 調查道具는 몇 가지 背景變數에 대한 項目과 두 개의 尺度로 꾸며졌다.

두 개의 尺度는 자기 契集團參與程度와 部落의 社會的 紐帶水準을 測定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契集團參與度는 응답자 개인이 직접 모임에 참석하는 契의 숫자로 측정하였다. 이것은 契의 성원자격이 가구단위인지 개인단위인지 그 구분이 모호한 사례가 많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계의 성원자격범위에 상관없이 모임에 주로 참석하는 사람을 위주로 측정하여야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社會的 紐帶의 尺度는 Fessler, D.R.이 5點尺度로 구성한 “地域社會紐帶指數(Community Solidarity Index; CSI)”의 40개 문항 중에서 조사대상지역의 실정에 적합하다고 본 9개 문항을 뽑아 이를 4點尺度로 再構成하였다.⁶⁾

본 연구에 사용된 사회적 유대척도는 신뢰도 검증 결과 $\alpha=0.76908$ 로서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essler는 원래 자신의 'CSI'를 가지고 농촌지역사회성원들이 그 지역사회 내의 制度化된 行爲(institutionalized behaviors) 領域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

6) Fessler, D.R., "The Development of a Scale for Measuring Community Solidarity," *Rural Sociology* V. 17 1952, pp.144-152.

는지와 그런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성원들간에 얼마만큼의 合意(consensus)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두 가지 사항을 동시에 측정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Fessler가 채택한 분석방법이 독특하다는 것이다.

즉 그는 CSI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점수를 지역사회별로 구하여 제도화된 행위에 대한 평가의 수준을 비교하고, 그 평균점에 부수적인 標準偏差를 다시 지역 사회별로 산출해내어 성원간의 合意水準을 비교하고 있다. 설명을 덧붙인다면, CSI에 대한 응답점수의 평균점이 높은 지역사회는 타지역사회에 비해 자체내의 制度化된 行爲領域들이 지역사회성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良質의 것으로 인정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평균점에 따른 표준편차수치가 작을수록 그 지역사회 성원들간의 자기가 소속한 지역사회의 제도화된 행위에 대한 평가가 同質的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편차수치가 작을수록 合意의 同質的인 정도가 높고, 이렇게 될 때 그 지역사회의 紐帶水準도 높다고 판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척도의 평균점과 표준편차의 수치는 서로 否의 相關關係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分析은 Fessler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Fessler는 표준편차들 간의 차이를 통계학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필요한 경우 Bartlett의 同變量性檢證方法(Bartlett test for homogeneity of variance)에 의해 카이-자승(Chisquare)을 산출해서 비교해 보았다.⁷⁾

Ⅲ. 結果分析

1. 調查部落들의 主要特徵

조사된 3개의 부락은 각각 M洞, G洞 그리고 Y里이다(〈表-I-1, 2〉 참조) M洞은 인구 약 210명에 50戶이며, 소수의 영세농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家口가 蓄産을 주로한다. 이 부락에는 약 200ha의 共同牧場이 있고 個人名義로 登記되어 있으나, 部落共同所有로서 組合의 形式으로 운영된다. 거의

7) 任寅宰「統計方法」서울, 博英社 1984, pp. 317-318.

〈表-I-1〉 調查部落別 特徵比較

比較項目	部落名	M 洞	G 洞	Y 里
人口		210名	150	320
主所得源		蓄產	蓄產・田作・農業勞動	果樹・田作
共同牧場		有(自體所有)	有(郡有地賃貸)	無(解體)

〈表-I-2〉 調查對象者의 一般的 性格

比較項目	部落名	M 洞	G 洞	Y 里	統計值
本部落居住年數	平均	27.70(年)	21.87	32.30	F=4.510 Df=1 p<.05
性別	男	50.0(%)	46.2	48.8	$\chi^2=0.9252$ Df=2 N. S
	女	50.0	53.8	51.2	
教育程度	國卒以上	58.8(%)	66.7	67.9	$\chi^2=6.6502$ Df=4 N. S
	中卒	18.8	17.9	23.8	
	高卒以上	22.5	15.4	8.3	
結婚與否	無配偶	28.8(%)	20.5	17.4	$\chi^2=0.2072$ Df=2 N. S
	有配偶	71.3	59.5	82.6	
同居家族員數	3人以下	42.1(%)	53.8	26.7	$\chi^2=15.1658$ Df=4 p<.005
	4~5人	43.0	38.2	31.4	
	6人以上	32.9	17.9	41.9	
마을會議 參席與否	參	50.6(%)	47.4	55.0	$\chi^2=0.67004$ Df=2 N. S
	不參	49.4	52.6	45.0	
家口의 前年度 總收入	200萬以下	28.6(%)	62.2	43.9	$\chi^2=12.2572$ Df=4 p<.05
	200~500萬	35.7	21.6	24.4	
	500萬以上	35.7	16.2	31.7	
部落共同 事業評價	良好	89.9(%)	94.9	73.8	$\chi^2=12.04004$ Df=2 p<.005
	不良	10.1	5.1	36.2	
部落共同 事業參與	參	70.9(%)	52.6	75.6	$\chi^2=6.59580$ Df=2 p<.05
	不參	29.1	47.4	24.4	
移住意思	有	42.5(%)	53.8	52.3	$\chi^2=2.34323$ Df=2 N. S
	無	57.5	43.6	47.7	
主觀的 階層評價	上	15.6(%)	5.6	7.3	$\chi^2=8.82120$ Df=4 N. S
	中	58.4	44.4	53.7	
	下	26.0	50.0	39.0	

全家口가 組合員이다.

G洞은 인구 약 150명에 35가구인 부락인데 주변에 대규모 企業牧場들이 다수 들어서 있어서 그 영향으로 특이한 農業經營方式을 보인다. 즉 부락내 가구의 절반 가량이 기업목장에 품팔이를 해서 勞賃을 받아 家計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른바 農業勞動者化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다. 이 부락의 共同牧場은 郡有地를賃貸하여 운영되고 있다. 부락내 家口의 약 77%인 27戶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Y리는 70가구 인구 약 320명으로 위 두 부락에 비해 규모가 제일 크다. Y리는 중산간 부락임에도 果樹(감귤)와 일반 밭작물에서 주로 소득을 얻고 소규모의 축산을 한다. 이 부락의 공동목장은 외지인에게 70년대초 매각되어서 해체된 상태이다. 이 해체과정에서 부락내에 갈등이 심했었다고 한다.

이상의 것들 이외에 세 부락들 간에 조사결과 나타난 特徵들을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表-I-2>와 같다. 表를 보면 契集團參與와 유관하리라고 기대되는 총 12개의 變數 중에서 통계학적으로 부락에 따라 有意味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5개임이 확인된다. 열거하자면, ① 現在部落에서의 居住年數, ② 同居家族員數, ③ 家口의 前年度 總收入, ④ 部落共同事業에 대한 評價, ⑤ 部落共同事業參與經驗 따위의 것들이다. 이 변수들은 뒤에 契集團參與도와 관련지을 때 部落別로 再分析되어야 할 것이다.

2. 契集團參與와 社會的 紐帶

먼저 부락별로 契集團參與程度와 社會的 紐帶의 水準을 비교한 것을 <表-II>에 제시하였다. 이 表에 의하면, M洞과 G洞은 (共同牧場保有 部落) Y리에 비해 1人當 平均 參與契의 數가 많을 뿐더러 통계학적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하다. 또 G洞(共牧賃貸) 보다는 M洞(共牧自體保有)의 그것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社會的 紐帶尺度의 平均은 의미있는 차이가 없고, 標準偏差를 비해도 동일하다. 그런데도 유의해서 보면, 契集團參與도가 높은 部落일수록 尺度點數의 平均이 낮고 (단, M, G洞은 뒤바뀜), 標準偏差의 크기는 오히려

〈表-Ⅰ〉 部落別 契集團參與와 社會的 紐帶

比較項目		部落名	M 洞	G 洞	Y 里	統計 值
1 人 當 平均 參與 契 數			1.3125(個)	0.5641	0.5000	F=12.213 Df=2 p<.0000
社會的 紐帶 尺度 點 數	平 均		6.4125	15.4615	17.4267	F=2.504 Df=2 N. S
	標 準 偏 差		4.4886	4.1729	5.7402	$\chi^2=5.3026$ Df=2 N. S (p<.08)

〈表-Ⅲ〉 契集團參與와 社會的 紐帶

比較項目		參與契數	無	1 個	2個以上	統計 值
社會的 紐帶 尺度 點 數	平 均		17.4393	16.2982	15.2000	F=3.350 Df=2 p<.05
	標 : 偏 差		5.0585	4.6979	4.4733	

려 작아지고 있다. ($p < .05$ 수준에서는 무의미하나, $p < .03$ 수준에서 유의미)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自生的 集團參與와 社會的 紐帶間的 機能的 關係와는 다른 양상이다. 즉, 어떤 부락내에 契와 같은 自生集團에 의 參與도가 높다면, 契集團間에 交叉成員(cross-membership)들이 많아질 것이고, 契를 통한 相互作用이 증가할 것이다. 또 그럴수록 서로의 태도나 주변 환경에 대한 認知를 同質化하기 쉽고(작은 數值的 標準偏差) 동시에 자기가 소속한 부락의 諸制度的 行爲領域들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게끔 도와주어(높은 尺度點數 平均), 결국에는 부락내의 社會的 紐帶와 統合의 水準을 높여주리라는 것이 일반적 推理인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契集團參與도가 높은 부락일수록 부락민들의 자기부락에 대한 評價가 좋지 않고 다만 그 평가의 合意度만 높게 나타날 따름인 것이다.

이것은 契集團參與도와 社會的 紐帶水準을 직접 연결지어 보아도 대동소이하다. 두 變數間的 相關關係 係數는 $r = -0.1663$, $p < 0.01$ 로서 상호 否의 關係를 보인다. 이를 다시 세분해서 본 〈表-Ⅲ〉에서는 契를 하나도 안든 사람이 紐帶尺度的 平均點數가 가장 높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契에 參與해 나

갈수록 낮아져 有意味한 차이가 난다. 그리고 평균점에 따른 표준편차는 평균점의 크기와는 逆關係를 보임으로써 <表-Ⅱ>와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앞의 일반적인 機能的 推理를 본 연구의 감정적 가설로 삼는다면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여지는 셈이 된다.

이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해보기 위해 다음에 일련의 <표-Ⅳ>를 검토하기로 한다. <表-Ⅳ>들은 <表-Ⅰ-2>에 제시한 변수들을 契集團參與도와 紐帶水準에 각각 연관시켜 變量分析(ANOVA)을 한 것이다. 그 결과, ① 現在部落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를수록 <表-Ⅳ-1>, ② 同居家族員數가 많을수록 <表-Ⅳ-2>, ③ 家口의 前年度 總收入이 많을수록 <表-Ⅳ-3>, 그리고 ④ 主觀的 階層評價가 上層일수록 <表-Ⅳ-4> 契集團參與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契集團參與도는 ⑤ 마을會議의 參與程度와 <表-Ⅳ-5>, ⑥ 部落共同事業參與經驗과도 <表-Ⅳ-6>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紐帶尺度的 평균과는 ① 마을會議의 參與程度 <表-Ⅳ-5>와 ② 部落共同事業에 대한 評價 <表-Ⅳ-7>에 있어서만 유의미한 관계가 있고 나머지 변수들은 무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서도 통계학적 有意味性을 무시하고 평균점들의 분포상태를 살펴보면, <表-Ⅱ>와 <表-Ⅲ>에서처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질듯한 변수들간의 關係方向과는 반대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① 部落居住期間이 길수록 부락에 대한 評價는 부정적이며, 그것은 ② 家口의 前年度 總收入이 많거나 (曲線의 關係이나 上層이 제일 부정적), ③ 主觀的 階層評價가 中·上層이거나, 아니면 ④ 마을會議 參與도가 높더라도

<表-Ⅳ-1> 現部落居住期間別 契集團參與와 社會的 紐帶

比較項目		居住年數			統計值
		10年以下	11~20年	21年以上	
社會的 紐帶 尺度點數	1 人 當 平均參與契數	0.3333	0.8333	0.9675	F=4.464 Df=2 p<.05
	平均	17.9487	16.7857	16.2683	F=1.764 Df=2 N.S
	標準偏差	5.0781	5.1159	4.7358	

〈表-IV-2〉同居家族員數別 契集團參與와 社會的 紐帶

比較項目		同居人數	3人以下	4~5人	6人以上	統計值
1人當 平均參與契數			0.3968	0.7778	1.2754	F=9.962 Df=2 p<.0001
社會的紐帶 尺度點數	平均		16.7460	16.8056	16.5942	F=0.035 Df=2 N.S
	標準偏差		4.7484	4.5830	5.3367	

〈表-IV-3〉家口의 前年度 總收入別 契集團參與와 社會的 紐帶

比較項目		收入程度	200萬以下	200~500萬	500萬以上	統計值
1人當 平均參與契數			0.5190	1.0000	1.1579	F=5.461 Df=2 p<.005
社會的紐帶 尺度點數	平均		15.5063	17.2642	16.1404	F=0.753 Df=2 N.S
	標準偏差		5.03	4.25	5.44	

〈表-IV-4〉主觀的 階層評價別 契集團參與와 社會的 紐帶

比較項目		階層	上	中	下	統計值
1人當 平均參與契數			1.3500	1.0095	0.4429	F=7.144 Df=2 p<.001
社會的紐帶 尺度點數	平均		16.3	16.1238	17.5	F=1.713 Df=2 N.S
	標準偏差		5.2224	4.7327	5.0383	

〈表-IV-5〉마을會議參與程度別 契集團參與와 社會的 紐帶

比較項目		參與與否	參與	不參與	統計值
1人當 平均參與契數			1.0882	0.5895	F=8.930 Df=1 p<.005
社會的紐帶 尺度點數	平均		15.7745	17.4316	F=5.680 Df=1 p<.05
	標準偏差		4.6606	5.0962	

유사하다. 또한 ⑤ 部落共同事業이 잘 진행된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더우기 이러한 평균점들의 분포방향은 契集團參與도와 逆關係를 보임도 <表-II>, <表-III>과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이 결과는 무엇을 뜻하는가? 단순히 契集團參與가 社會的 紐帶를 침해하는 갈등적 요소임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調查過程上의 어떤 誤謬가 介入한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우선 앞의 分析을 要約해보자.

① 현재의 부락에서 장기간 거주하여 부락사정을 잘 알고 기왕의 利害도 많거나, ② 上層의 계층에 속하여 부락의 대·소사에 영향력 행사가 쉽다든가, 아니면 ③ 同居家族員數가 많아 人的資源이 풍부하고, 다양한 相互作用의 網을 구축하는 것이 용이하면, 契集團參與도는 높은 데 부락에 대한 評價는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④ 마을회의에 參與하면서 부락민들과의 관계 맺음이 양호한 사람들이 또한 그러하다. 한편, 이와 같은 배경이나 性向을 지니지 못할수록 契集團參與도는 낮는데 반해 부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오컨대 前者에 가까운 사람들은 자기부락에서 이미 자신의 地位가 어느만큼상층에 속하고 安定된 既成의 集團(established group) 혹은 토박이라고 하겠으나, 後者인 경우는 자신의 부락내 지위가 불안정하여 항시 주위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에 민감히 반응할 수 밖에 없는 限界的 集團(marginal group)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契集團參與도가 높은 既成集團의 成員들은 타성원들과의 중첩적이고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부락내·외에 대한 각종

<表-IV-6> 部落共同事業參與程度別 契集團參與와 社會的 紐帶

比較項目	經驗與否		統 計 值	
	有	無		
1人當 平均參與契數	0.9855	0.5082	F=6.949 Df=1 p<.01	
社會的紐帶 尺度點數	平 均	16.7536	16.4754	F=0.136 Df=1 N. S
	標準偏差	5.2022	4.1618	

情報의 취득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손쉬울 것이며, 따라서 자기 주변 환경에 대한 問題의 認識도 비교적 확실히 할 수 있겠고 그에 관한 統制의 欲求도 높을 것이라는 생각을 덧붙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契集團參與도와 紐帶尺度의 평균점간에 나타나는 逆關係를 無作爲的 誤謬(random error)에서 온 것이라고 置之하기는 힘들어진다.⁸⁾ 그것은 아래의 추론으로 미루어 볼때 그러하다. 즉, 既成集團에 속한 부락민들은 바로 그 集團의 屬性에 의해 契集團參與도가 높기 마련이고, 자기 주변 환경에 내재한 문제점 인식이 그만큼 더 실질적이면서도 그런 인식을 비교적 솔직히 시인할 수 있는 처지라 할 것이다. 반면, 그렇지 않은 부락민들은 契集團參與도가 낮을 수 밖에 없고, 주변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부정적일 경우 더 그러하겠지만—자신이 인식한 바를 표현하려면 항시 주위의 부락민이나 그의 다른 통제를 가할 수 있는 機構의 반응이 어떠한 것이냐를 고려할 필요가 더 많을테고, 따라서 자신의 본래 생각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응답할 개연성이 높다는 추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表-Ⅲ>과 <表-Ⅳ>에서 契集團參與도가 낮은 사람들일수록 紐帶尺度의 표준편차치가 커서 상대적으로 일관된 응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으로도 타당화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를테면 의도적으로 응답을 왜곡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소위 지그재그형 응답이나 中間值中心型 응답 또는 極端值中心型 응답이 나오기 쉽고, 이것이 分散值의 확대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결과는 차라리 한국사회

<表-Ⅳ-7> 共同事業評價別 契集團參與와 社會的 紐帶

比較項目		評 價		統 計 值	
		良	好		不 良
1人當 平均參與契數		0.882		0.5313	F=2.462 Df=1 N. S
社會的紐帶 尺度點數	平 均	16.0588		19.8063	F=17.973 Df=1 p<.000
	標準偏差	4.4757		5.8219	

8) 金光雄 「社會科學研究方法論」 서울, 博英社, 1977, pp.174-176.

를 조사연구할 때 자주 부딪치는 體系的 誤謬(systematic error)의 개입이라고도 할만 하다.

IV. 結 言

本 研究가 지금까지 수행한 분석과 그에 관한 해석은 契集團參與度の 屬性和 體系的 誤謬의 介入可能性이라는 두 側面을 연결하여 시도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잠정적인 결론에 불과하고 다른 방향에서 推論해 볼 여지도 없지 않다. 예컨대, 앞서의 부락별 특징의 영향이라든가, 보다 큰 범주에서 보는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성격 따위의 것도 이에 연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현재와 같이 부단히 변동하는 한국사회에서 그리고 좁게는 濟州島에서의 契에 대한 研究는 너무 많은 공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맥락속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하나의 問題提起라고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적이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도외시 할 수는 없다.

예시하자면, 첫째, 본 연구가 원래는 다른 연구의 한 구성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오는 標本抽出上의 제약과, 둘째, 아직 완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비분석의 수준인 데서 드러나는 미비점, 그리고 셋째로는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참여관찰을 통한 보완의 필요성 등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 될 것이다.

表 1. 契集團參與度의 屬性에 따른 契集團參與度의 差(%)

契集團參與度의 屬性	契集團參與度의 差(%)	契集團參與度의 差(%)	契集團參與度의 差(%)
契集團參與度의 屬性 1	0.510	0.520	契集團參與度의 差(%)
契集團參與度의 屬性 2	0.520	0.530	契集團參與度의 差(%)
契集團參與度의 屬性 3	0.530	0.540	契集團參與度의 差(%)